

전북대, 오늘 경희대 김상욱 교수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학장 이영아)은 5일 스타 물리학자인 경희대 김상욱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올해 UN 세계 기초과학의 해와 자연과학대학 창립 70주년을 맞아 4일부터 전북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연과학주간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7층 동행홀에서 열리는 특강에서 김상욱 교수는 '자연과학을 왜 알아야 할까'를 주제로 어렵고 생소한 기초과학 등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행사 특강은 오후에도 이어진다. 오후 2시부터는 허리하리의 생물학 카페의 저자 이은희 작가 특강을 비롯해 오후 4시 MZ 세대 뇌과학자로 유명한 송민령 박사가 사회와 함께 가는 뇌과학을 주제로 대중들과 만나고

한편, 전북대 자연과학대학은 10월 첫 주를 '자연과학주간'으로 지정해 매일 테마별로 기초과학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도교육청에 장학금 전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는 4일 전북교육청을 찾아 사랑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상덕 회장을 비롯한 이영길 명예회장, 함상진 부회장, 전주환 운영위원 등 임직원 4명은 도교육청을 방문해 서거석 교육감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전북도회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전북교육청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18년 간 기탁된 장학금만 총 7,800만원에 달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학금을 기탁해 준 전북도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를 통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공학교육 우수평가위원 전문성 인정 수상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우수평가위원 시상에서 우수평가위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그리고 대학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교육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평가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시상식은 교육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학교육인증제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각 전공 분야별 대학교수와 연구소, 산업체 인사가 포함된 인증평가위원들이 전국 25개 대학 11개 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최우수상 수상자는 김필기 교수(기계설계공학부)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다수의 평가위원을 배출한 공로로 전북대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국제적 등가성 확보를 위해 조직된 공학 분야 인정기관으로 전국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 2022년 군민대상 수상자 4명 최종 선정

부안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선정하는 2022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4명이 최종 선정됐다.

부안군은 4일 부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효열·산업·공익·체육부문 4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결과 총 4개 부문에 4명이 접수되어 현지조사 등을 거쳤으며, 이날 심사를 통해 최종 4개 부문 4명의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부문별로는 효열부문 윤석남(동진면·79)씨, 산업부문 김태영(전주시·40)씨, 공익부문 김재희(부안읍)씨, 체육부문 장영환(부안읍·78)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22년 부안군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열린공감의 날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주어진다.

/부안=김석진 기자



'미래세대 위해 사용해 달라'

한솔문구 김진자 대표 · 생활개선무주군 연합회 장학금 기탁

무주군에 미래인재를 위해 사용해 달라면서 장학금 기탁이 이어져 귀감이 되고 있다.

한솔문구 김진자 대표는 4일 무주지역 미래인재를 위해 사용해 달라'면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한솔문구는 무주군 무주읍에서 오랜기간 운영해 온 문구업체다.

이날 무주군청을 찾은 김진자 대표는 "평소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고민하던 중 무엇보다 우수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미래세대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는 회원 화합과 실천교육을 마친 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

학금 1백만 원을 기탁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강신석 회장은 "이번 제26회 반딧불 축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면서 "무주군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장)는 "장기간의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체 운영과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회원간 모임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선뜻 기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며 "기탁금이 무주지역 청소년들에게 값지고 뜻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취임 100일 앞두고 종합복지관 찾아 배식봉사

민선 8기 무주군수 취임 당시 '군민을 섬기는 군민정치시대'를 예고했던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4일 취임 100일(10월 8일)을 앞두고 무주종합복지관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는 '바로 뛰는 행정, 섬기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으로 황 군수는 점심시간(11:40~13:00) 복지관 식당을 찾은 어르신 등 주민 2백여 명과 만났다.

황인홍 군수는 "지역발전은 무엇보다도 주민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오늘 배식봉사 역시 그 일환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먼저 챙기고 섬기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이날 외에도 황 군수는 민선 7·8기 취임식을 비롯해 매년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등 어르신들을 비롯한 장애인 등 지역의 소외계층을 먼저 찾아 마음을 전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민선 8기 무주군 복지정책의 핵심은 '공평하게 누리는 모두의 복지공동체'로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비 지원연령 확대(만75세~만170세),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관내 목욕시설을 활용한 무료 목욕서비스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비롯해 △저상버스 도입 등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결혼이민 여성의 고령자들이 확대 방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노인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남원시노인복지관(관장 장진석)은 지난달 30일,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2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1(일)상의 0(영)원한 친구! 남원시노인복지관"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법인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와 지역사회 기관장 및 지역주민 이용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가끼시 △북지관 봉사동아리 "청춘노리망상불"의 축하공연 △동영상축사(최경식 시장, 전평기 시장의, 이용호국회의원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로패 시상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상 △한글무용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분들에게는 △교구장상(후원자 영역: 김현정, 자원봉사자 영역: 오동환·이옥, 관계공무원영역: 김수진) △대표이사상(후원자영역: 윤수만, 이용자영역: 오상



용, 강사영역: 김형석, 김미숙, 이순옥) △복지관장상(10년 장기근속상 및 7년 장기근속상)이 주어졌다.

특히 소원성취 프로젝트에 응모하신 이서운 어르신(99세)의 소원이 성취되는 과정 그 사연이 영상으로 소개될 때에는 사회자(박근아 아나운서)를 비롯한 많은 참석자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우체국,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행복 나눔

남원우체국(국장 백만숙)은 지난달 30일, 노안동에 위치한 남원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고 결식 우려가 높은 저소득 가구 아동 독거노인 등을 위해 생필품과 함께 따뜻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에서 백만숙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남원사회복지관에 쌀과 라면, 화장지 등 7종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복지관 종사자들을 위문했다.

남원우체국은 연중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한편 백만숙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힘든 아동과 어르신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제8회 지역아동센터 재능발표회 개최

남원시와 남원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우리의 꿈, 끼 알릴까 물라?' 라는 주제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능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8번째를 맞이하는 재능발표회는 15개 센터 15개 팀이 참여해 수리수리 미술을 시작으로 우쿨렐레, 댄스 합창, 악기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아동들의 끼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남원시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재능발표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오늘 재능발표회를 통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

최영일 순창군수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주관하는 아동폭력근절 온라인 캠페인(#END violence)에 동참했다.

군에 따르면 최영일 군수는 최홍식 장수군수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아동·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고자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로고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에 아동폭력근절의 메시지를 담아 올리고 다음 참여자 2~3명을 지명하는 릴레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최홍식 장수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아동폭력 근절 순창군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처럼 아동이 행복하고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이용호 국회의원, 전춘성 진안군수, 신정이 순창군회의회장을 지명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대, 오스트리아 빈에 'HATCH 거점센터' 구축

전주대학교 IINC3.0 사업단은 지난 1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빈(비엔나)지회(지회장 김준)와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 오스트리아 빈(비엔나)에서 HATCH 글로벌거점센터 현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승 단장 김준 지회장 김준민 오스트리아 한인회장, 손병권 월드옥타 서유럽 총괄 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제5회 월드옥타 유럽총합 차세대 리더스 컨퍼런스 중에 진행, 지난 8월 이스타블 창업 무역스쿨에 참가하여 우수한 활동으로 이스타블 차세대 회원이 된 전주대 이소희 학생(일본어문화학과)이 이스타블지회(지회장 소재연) 차세대 회원 자격으로 참가했다.

한편 전주대는 2018년부터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협력해 전주대 재학생과 전라북도 지역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HATCH 글로벌거점센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주승 단장은 "우리 대학에서는 글로벌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전북 기업 무역스쿨에 개최 등 졸업생과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거점센터를 구축해 전주대 학생들과 가족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농·축협, 구절초축제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정읍시(시장 이학수)와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지난 1일 제15회 구절초축제 개막에 맞춰 방문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관내 농축협 조합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정읍의 대표적 가을 축제인 구절초 축제를 찾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홍보 팸플릿과 생수를 나누어주며,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뜻을 모았다.

이재연 지부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불균형을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며 "정읍시와 농축협은 지속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